

FIX 2025 대구 스타기업 글로벌 질주!

700만불 수출의 문을 열다…투자 IR,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 세미나 등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 (FIX 2025)’에 참가한 대구 스타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스타기업관(Star Global Village)을 운영하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10개 스타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기업설명회 (IR),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사에서 총 5건의 수출 계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3건은 약 700만불(한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수출계약이며, 2건은 상호 협력 MOU가 성사됐다. 특히 ㈜에너피아는 중국 Daewoo Equipment 사와 연간 300만 불 규모의 초대형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이나 GEOWEST 사와는 2026년까지 총 200만 불 규모의 장기 계약도 성사시키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원스톱 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체비(주)는 에티오피아 Robel Selemone Kebede 사와 200만 불 규모의 단일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물꼬를 뒀다.

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분야에서 기술력과 신뢰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성과로, 향후 아프리카 내 추가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유엔디는 핀란드 Karelcs Robotics 사 및 중국 Woosiyuan Robotics 사와 각각 MOU를 체결했으며, 각 50만 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핀란드와 중국 시장 공략의 기반을 마련했다.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지속적인 바이어 발굴과 사후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성과가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농촌 위케이션으로 농촌에 활력 더한다

기업 대상 농촌 위케이션 순조롭게 진행 중…(주)상지건축 임직원 참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경남형 농촌 위케이션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의령군 청미래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주)상지건축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2박 3일 농촌 위케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같은 기간 상지건축 직원 30명이 추가로 참여한 농촌 일손돕기와 마을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도심 근무지를 잠시 벗어나 가을 농촌을 만끽하며 농산물 수확 체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농촌의 일상과 매력을 몸소 느꼈다.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내 15개 시군 23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해 농촌 위케이션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숙박·식사·체험·웰컴 키트 등이 포함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경남도는 도내 23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현대로템 등 31개 기업·기관

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짧은 기간 농촌에 머무르며 업무와 쉼이 어우러진 체험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지하고 나아가 농촌의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령 청미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주)상지건축은 1사 1촌의 인연으로 2010년부터 15년간 명절, 어버이날 행기기는 물론 연 2회 이상 일손돕기 추진 등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박상석 (주)상지건축 본부장은 “15년 동안 마을과 다양한 교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 위케이션을 통해 2박 3일동안 청미래마을에 머무르다 보니 마을 주민이 된 듯하다”라고 밝혔다.

성홍택 농업정책과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며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근무 문화”라며, “경남의 농촌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성룡 기자

세계식품(주), 울산에 새 터전 마련했다

건과류 토종상표(브랜드) ‘머거본’을 제조·판매하는 세계식품(주)이 울산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23일 울주군 삼남읍 머거본 일반산업단지 내 식품제조 생산공장에서 ‘세계식품(주) 울산공장 준공식 및 본사 이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신주식 세계식품(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4월 세계식품과 식품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공장 신설을 도왔다.

세계식품은 이 같은 울산시의 지원에 보답해 올해 7월 본사를

부산에서 울주군 삼남읍으로 이전하며 울산시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울산공장 준공으로 창출된 170여 개의 신규 일자리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신주식 세계식품(주) 대표는 “고향 울주군 삼남에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기업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울산시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도시를 목표로 친기업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라며 “세계식품이 울산에 대표하는 항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식품(주)은 지난 1986년 우성식품(주) 스낵식품사업부에서 시작해 2000년 세계식품(주) 법인을 설립하고 종합식품 기업으로 거듭났다.

대표 상표 ‘머거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몰뿐 아니라 미국·일본·중국·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23일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동구청 부지 내 주차된 전기차 화재(1차 사고)가 사회복지시설로 확산(2차 사고)되고, 강풍에 의해 인근 야산으로 산발(3차 사고)이 번지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이호근 기자

경북도, 2025 대체식품산업 글로벌 포럼 개최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대체식품 혁신 및 글로벌 협력 논의



가받은 씨위드(의성), ㈜틸라이트푸드(포항) 등 6개 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식품, 글로벌 동향과 국내 혁신 사례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박유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글

로빈 신소재 식품, 특히 배양육을 중심으로 한 국제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선진국의 제도적 변화와 시장 진입 전략을 제시했다.

이광진 한국식품산업진흥원 PM은 국내 대체식품 산업의 혁신 방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을 발표했고, 최

두영 (㈜엘에스비) 이사는 3D 프린팅 식품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식품 시장에서의 응용 사례를 중심으로 비전을 공유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권오상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술규제 완화,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대체식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투자설명회에서는 푸드테크 기업 5개사가 참가해 각사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발표하여, 벤처캐피탈(VC) 및 기술·특허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해외 공동연구, IR피칭대회 개최 등 국제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 사업을 병행해 미래식품 산업의 대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윤석 기자

‘2025년 사천시 우주항공특화 일자리박람회’ 개최해

구인기업과 유관기관 등 33개사 참여, 약 800여 명 방문 뜨거운 관심!

사천시는 우주항공산업 중심의 청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5년 사천시 우주항공특화 일자리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사천시가 지역 항공산업 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구인기업과 유관기관 등 33개(직접 23개, 간접 10개)사가 참여한 것은 물론 약

800여 명의 구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1:1 현장 면접을 비롯해 취업지원 유관기관에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지원사업 소개 등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해 구직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부대행사관에서는 면접용 퍼스널컬러 진단, 메이크업, 타로 카드 등 취업 스트레스 완화와 자기표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이 함께 운영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AI)은 ‘항공제조업 비전 설명회’와 토론회, 박창규 교수는 ‘2025 항공트렌드에 맞춘 성공취업 전략’ 특강으로 항공산업 관련 기업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일자리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주항공공화 개청과 함께 사천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23일 정동면 정동문화교류센터에서 의료·복지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행복 더드림 버스’를 운영했다. 이날 15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방학서비스 ▲법률·세무·복지 상담 ▲이·미용 봉사(커티)와 함께 ▲구강진료버스 ▲치매안심행복버스 ▲마을안심버스 등이 배치돼 분야별 건강검사와 상담이 이뤄졌다.

최성룡 기자

동백전 캐시백 11월부터 적용 한도 50만원으로 확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는 캐시백 별도 한도 50만 원 적용



부산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동백전 월 캐시백 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또한, 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는 캐시백 요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18퍼센

트(%)까지 인상하고, 50만 원의 별도 한도를 추가 적용하여 운영한다.

11~12월의 캐시백 요율은 9~10월과 같이 최대 13퍼센트(%)를 유지하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10.29~11.9)에만 한시적으로 ▲최대 18퍼센트(%) 캐시백 요율을 적용하고 ▲50만 원의 별도 한도를 추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는 50만 원 사용 시 최대 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11월 한 달 동안은 총 100만 원 사용 시 최대 15만 5천 원 환급이 가능하며, 이는 2019년 12월 동백전 출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캐시백 혜택이다.

아울러, 동백전 사용이 가능한 ▲부산 소상공인 공공 배달 앱 ‘뽕겨요’ ▲택시 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온라인 지역 상품 물 ‘동백물’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시는 하반기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9월부터 동백전 캐시백 요율을 최대 13퍼센트(%)로 인상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9월의 발행액은 총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1.6퍼센트(%) 증가하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지자체 최초 구독형 클라우드(SaaS) 문서뷰어 도입해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군 대표 홈페이지의 문서를 PC와 모바일에서 다운로드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SaaS)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노후화된 기존 문서보기 솔루션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AI 등 신기술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SaaS)는 정보시스템 자원을 클라우드센터로부터 빌려 월사용료(구독료)만 내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전산시스템 직접 구축 시의 초기 비용과 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부담을 줄여주고, 필요시 빠르게 시스템 전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클라우드 문서뷰어 서비스 도입은 지자체 최초로 SaaS(구독형 방식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로, 테스트와 안정성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정식 사용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클라우드와 AI 등 첨단 서비스를 선제적

으로 도입해, 군민이 더 편리하게 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송군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내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진보면사무소를 ‘치매극복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현관 전달식을 개최했다.

진보면사무소는 앞으로 전 직원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민원 업무 중 치매 의심자나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를 발견할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여

조기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치매극복선도기관 지정을 통해 ‘치매는 함께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하며, 관공서, 복지시설,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윤석 기자